

대학도서관의 綜合目錄과 인쇄카드에 대한 제언

白 麟

—차 례—

- I. 한국 도서관의 현황과 그 문제점
- II. Printed Card
- III. 綜合目錄
 - (A) 綜合目錄을 위한 試圖
 - (B) 綜合目錄에 따르는 問題點들
 - 가) 參加範圍
 - 나) 未整理圖書의 處理問題
 - 다) 새로 수입된 圖書에 對한 問題
 - 라) 對 象
 - 마) 既整理圖書에 對한 業務內容 및 카드 作成
- III. 結 論

대학 도서관이 필요하다든 것은 그것이 학문연구를 위한 수단이지 결코 그 설치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수집정리된 資料와 施設은 그 利用하는 教授나 學生의 편의를 최대한도로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견해이다. 그리고 교수나 학생의 연구 및 學習活動을 돕기 위해서는 매우 정확하고 가장 새로운 자료를 가장 빠른 時間내에 제공함으로써 調查연구에 있어서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대학교육의 시책이 실질적으로는 도서관의 활동을 경시하며 입으로만 대학교육의 심장부라는 공염불만 하고 있다. 도서관에 대

※ 필자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과장, 도서관학전공, 연세대학교 강사.

한 이러한 그릇된 견해가 시정되어 도서관이 명실공히 대학교육의 심장부로서 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정상화 내지는 학문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I. 도서관의 현황과 그 문제점

대학 도서관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각 도서관이 이용자를 위한 직접 봉사면 보다는 도서 정리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며 봉사면에 있어서는 열람과 대출업무가 고작이고, 참고봉사, 서지조사, 복사물의 제공등 현대 도서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는 거의 이루워 지고 있지 못하다.

대다수의 도서관은 전체 직원의 50%가 이 정리작업에 동원되고 있어, 봉사면에 자연스럽게 소홀해 지게 되고, 따라서 도서관의 이용자 측에서도 이러한 도서관에 대하여는 기대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서의 정리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만일 정리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그 여력을 봉사면에 돌릴 수 있게 된다면 도서관의 이용자를 위하여 보다 더 자극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도서관 보래의 사명을 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圖書館 利用者가 요구하는 圖書는 實로 廣範圍하고 雜多하다. 그리고 每年 世界各國에서 生産되는 出版物의 量은 막대한 것이어서, 아무리 규모가 큰 圖書館일지라도 한 도서관이 이들 자료를 다 수집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學問의 연구나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要求하는 자료를 가능한 한 수집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립된 두 가지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각 대학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총합하여 共同利用에 이바지 한다는 것은 대단히 有益한 일이다.

그리고 도서를 總合하여 공동적으로 利用케 한다는 것은, 綜合目錄에 依하여 어떤 圖書의 有無와 어디에 있는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비

로소 가능한 일이다.

서울大學校가 그의 중앙도서관내에 Library Service Center 를 설치하고 서울대학교 도서관 자체의 문제와 아울러 전체 국립대학교 도서관의 당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타개한다는 일은 국립대학 도서관 뿐만아니라 전체 대학 도서관의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大學校 도서관이 당면하는 문제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빈곤의 타개
2. 도서정리의 신속화
3. 문헌의 신속한 제공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綜合目錄 카—드의 작성
2. 도서정리의 신속을 위한 인쇄목록카—드의 배포
3. 문헌 제공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는 문헌속보의 발행과 복사시설의 완비

이상의 세가지 문제중 (1), (2)는 대학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협력으로서 충분히 실효를 거둘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편의상 종합목록을 논하기 전에 인쇄카—드부터 논하기로 하자.

II. 인쇄 카—드

미국의 국회도서관은 1898년부터 이미 인쇄카—드를 만들기 시작 하였고 미국내의 각급 도서관은 물론 세계 각국의 대학 도서관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도서관 용품상사인 H.W. Wilson Co.가 1938년 부터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을 위해서 인쇄카—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국회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효과있는 봉사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印刷目錄 카—드의 배포계획을 시도한

바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 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1) 인쇄목록을 위한 설비와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2) 이 계획에 참가하는 모든 도서관이 동시에 같은 책을 구입하기 어려우므로 목록카드의 필요한 양(量)을 일시에 알 수 없었으며.

(3) 분류 및 목록의 규칙과 방법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형식이 일정한 인쇄목록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권위있고 학문적인 분류표나 목록규칙이 없어서 모든 도서관이 통일된 분류와 목록을 하지 못하고 도서관마다 개별적인 분류표와 목록규칙을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64년에 한국 도서관 협회에서 「한국 십진 분류법」과 「한국 목록규칙」을 편찬 발행하였고 1966년에는 그 2판이 나왔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과 K.D.C를 사용하는 도서관으로 나누어지며, 대학도서관은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80%이다. 그러므로 정리방법에 있어서는 거의 통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난점은 목록카드의 인쇄방법인데 이는 914型 Xerox를 사용하여 카드를 복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인쇄목록보다 더 실시하기가 쉬울 것으로 믿는다. 그 장점으로는,

(1) 설비가 간단하고

(2) 같은 책이 동시에 구입되지 않아서 목록의 필요한 양을 동시에 모르더라도 「기본기입」목록만 있으면, 언제나 필요할 때 수시로 색출해서 복사할 수 있으며,

(3) 대학도서관에서는 보통 분류표는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를 사용하고 목록 규칙은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와 L.C Rules for Discriptive Cataloging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 종합정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정리방법 및 순서로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1) 목록작성을 위한 준비작업

서가상에서 部門別로 유사도서를 구별 類集하여 복본을 한 곳으로 모아

놓는다.

해당 대학은 정리를 필요로 하는 圖書를 分類하고 同時에 基本目錄 作成上 필요한 諸 記術事項을 sheet 에 적어 中央圖書館으로 송부한다.

(2) 分類作業

가) 도서를 D.D.C 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분류기호를 그 도서에 연필로서記入하여 둔다.

나) 목록규칙에 의하여 標目을 선정하고 선정된 標目밑에 연필로서 줄을 그어 준다.

다) 著者記號表에 의하여 圖書番號를 決定하고 그 번호를 분류기호 밑에 연필로서 기입하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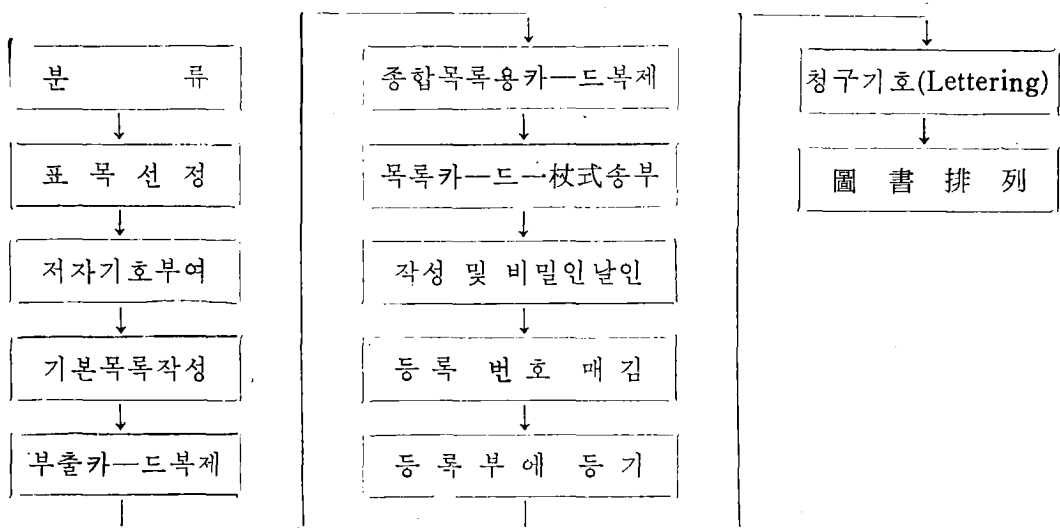
(3) 基本目錄作成에 필요한 쉬트(정비스립)에는 標目, 書名, 著者表示, 版次, 出版地, 出版社, 出版年度, 卷, 面數 等を 記術하고 서명, 공저자, 역자 등 필요한 부출 지시를 하여 준다. 사무사항으로는 작성일자, 등록번호, 구입가격 등을 표시한다.

이 쉬트가 中央도서관으로 송부되면 中央圖書館에서는 즉시 print 에 필요한 原型카-드를 정서하여 Xerox 914 機에 넣어 印刷카-드를 낸다.

(4) 카-드 복제작업

이미 만들어진 原型카-드에 의거하여 各種副出記入을 만들때에 綜合目錄

정 리 순 서



用的 카드 一枚式을 同時에 Xerox 914 機로서 사진 복제한다.

(5) 目錄 카드를 받은 후의 도서 처리업무.

가) 藏書 및 비밀인 捺印

나) 등록번호를 매긴다.

다) 基本記入에 의거하여 등록번호의 順次대로 등록부에 登記한다.

라) 도서에 청구기호를 “포스타칼라”로서 記入한다. (Lettering)

마) 복제작업이 끝난 도서는 검사를 받아 서가에 배열한다.

Ⅲ. 綜合 目錄

종합목록의 목적은 원래 어떤 도서의 유무와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누구나 알게하고, 收書業務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Farmington plan 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도서구입 예산의 조정에 있는 것이다.

종합목록이 열람자를 위해서 열람자가 찾고자 하는 도서의 유무와 소재를 신속히 알려줄 수 있다면 대학도서관의 종합목록의 편찬은 매우 긴급하며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일이며 계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이 계획에 책임을 지게되는 중앙 圖書館과 이에 협조할 各 大學圖書館이 事務的으로나 圖書整理의 技術面에 있어서 相互密接한 유대를 가지고 計劃을 成就하는데 共同努力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A) 綜合目錄을 위한 試圖

그리하여 우리는 이 문제와 아울러 대학도서관 운영전반에 걸친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얻기 위하여 國立大學圖書館長 및 사서장 회의를 年2회씩 갖기로 하였던 것이며 이 회의를 통하여 여러 문제의 해결을 試圖하여왔다.

그런데 종합목록은 한국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고 또한 이 새로운 일의 意義를 아는 바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慎重을 기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 方面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이 全國立大學이 所藏하는 圖書에 所要될 時間과 努力의 量을 算出하는 計劃이란 어려운 일이며 설사 그 計劃이 세워 졌다 치

더라도 그것은 不確實한 것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내에서 最小限度의 量을 가지고 綜合目錄을 始作하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第1次계획으로서 1963年부터 2年間に 걸쳐 서울大學校 각 단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도서 11萬卷에 對한 綜合目錄用 카-드를 完成하였고, 現在도 이 사업을 계속하는 中이다.

第2次계획으로서는 전 서울대학이 가지고 있는 定刊物 綜合目錄을 作成하여 이를 完成하였고, 第3次 계획은 第8次 국립 대학도서관장회의에서 외국 학술잡지에 대한 종합목록을 작성할 것을 결의하고 그 사업을 서울대학교 도서관 주관하에 1968年 10月 10日에 完成을 보았다.

綜合目錄을 作成하는데는 포함될 자료의 선택과 거기에 구성된 자료의 現在狀態가 考慮되어야 한다. 포함시킬 자료가 現在 잘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滿足할만한 結果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1968年 10月 19~20日 경 북대학교 도서관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第3단계에서 작성될 종합목록 대상으로 선택된 것은 「한국역사」이었고, 이 주제에 있어서도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주관하기로 결의되었다. 이것은 주제범위가 좁고 그 分量이 적기 때문에 1969年 3月 30日까지는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綜合目錄은 비록 制限된 것으로 始作되었지만 참가기관에 대하여는 검색의 도구로나 또는 그들의 수서계획에 있어서 보조도구로서의 그 대단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체 한국의 大學圖書館이 이에 참가할 것으로 믿고 종래의 계획을 좀 더 확대하여 6개 국립대학교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종합목록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B) 綜合目錄에 따르는 問題點들

가) 參加範圍

이 계획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3개 분관 및 5개의 지방 국립대학이 소장하는 全藏書에 대한 종합목록의 作成이므로, 藏書의 多少와 主題의 如

何를 不問하고 일단은 該當 大學校의 모든 藏書는 이 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各 大學別의 總藏書數와 그 整理現況을 보면 아래와 같다.

그러나 아래의 統計는 종합목록을 작성할 정확한 대상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숫자 중에는 續刊物, 全集, 叢書類 및 복본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計劃은 正確한 統計를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진행 도중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對象圖書의 現況 (整理實態)

大學別	區分		既整理圖書의 카드枚數	
	東西書別		東洋書	西洋書
서울大	中	央	57,000	19,000
	工	學	8,000	19,000
	教	育	8,000	13,000
	農	學	18,000	12,000
	文	理	3,000	17,000
	法	律	17,000	9,000
	商	經	21,000	6,000
	音	大	1,000	5,000
	行	政	6,000	9,000
	新	聞	1,000	1,000
경	북	대	58,000	80,000
부	산	대	55,000	28,000
전	남	대	36,000	25,000
전	북	대	32,000	20,000
총	남	대	32,000	8,000
	계		353,000	271,000

나) 未整理圖書의 處理問題

이 計劃에 있어서 未整理의 資料를 包含시킬 것인가? 萬一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어떠한 方法으로 處理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정리도서를 처리하는 곤란성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推定할 수는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全部를 包含하는 데는 예측할 수 없는 努力을 必要로 하게되며, 틀림없이 이 계획을 더디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所要되는 努力보다 時間 그리고 費用보다도 全體계획을 위하여 더욱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計劃에 마땅히 包含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未整理圖書에 對하여는 종합정리계획서를 參考하기 바란다.

다) 새로 수입된 圖書에 對한 問題

本 計劃이 實施된 以後에 새로 收入 또는 整理되는 圖書도 이 종합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목록카드-드의 入手方法으로는

- (1) 本館의 職員을 파견하여 직접 카드-드를 복제하여 오는 方法.
- (2) 該大學에서 목록작성시에 한벌을 더 作成하여 서울大 中央圖書館에 보내주는 方法.

그러나 첫번째 方法은 이 計劃이 일단 完了되고 正常的으로 종합목록이 追加되기까지는 어려운 일이므로 現在의 사정으로는 두번째 方法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있고 효과적이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方法은 서울大 中央圖書館에서 모든 참가도서관의 수입도서에 대한 一括정리 即 라이부러리 서비스 센터(Library Service Center)적 役割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대학총장 또는 학장과 사전협의 아래 본계획이 실패함이 없이 계속될 수있도록 미리 約定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 對 象

이 計劃을 進行함에 있어서 그 對象의 選拔方法과 順位決定에 몇가지 考慮할 點이 있다.

대학도서관의 有機的인 運營을 위하여 대학별로 현재 조직된 자료의 구성 및 장서의 가치 등을 생각하여 단계식 作業으로 종합목록을 만들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몰랜드 教授의 제언과 같이 교수와 학생들의 관계부문에 對한 관심도를 고려하여 부문별로 선택하여 특수주제의 종합목록을 작성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 어느쪽도 다 택해야 하기 때문에, 醫藥系만을 제외한 全體 주제를 이것에 포함 시키기로 하였다.

다) 既整理圖書에 대한 業務內容 및 카-드 作成

이미 整理된 것은 서가목록이나 기본목록에 의하여 카-드 一部를 복제하여 온다. 카-드 用紙는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의 소장목록과 혼합할 경우를 고려하여 특별한 表示를 하고, 아울러 각 도서관의 소장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호 위에 그 대학의 略號를 부기한다.

例：釜大，慶大의 고무인으로 表示한다.

복제카-드는 中央圖書館에서 保管하며 時時入受되는 카-드는 手擔한 職員만이 配列하다.

各 大學이 가지는 장서목록의 복제는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 하고 해당대학에 직원을 파견하여 사진복사 카-드를 만들어 온다. 이 경우 우리가 가장 필요로하는 것이 사진복사기로서 이 계획을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 것은 Xerox 914 型機이다.

이 機를 가지고 順次的으로 地方大學의 所藏目錄을 복제한다면 대단히 능률적이기때문이다. 그런데 洋書目錄의 複製는 별로 문제되지 않으나, 東洋書에 있어서는 標目の 統一과 記入形式의 統一을 期하기 위하여 다소 調整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目錄은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 原型을 再作成하여 複製하여야 할 것이다.

VI. 結 論

우리는 이제까지 printed card 와 綜合目錄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찰해 왔다.

여기서 재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현대 도서관이 학문의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그나라 文化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나 대학도서관이 대학교육과정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오늘날 도서관의 역할은 옛날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열람자가 도서를 찾을때 까지 장서를 사장(死藏)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도서정리에 의해서 보다 이용하기

쉽게 적극적으로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는 참고자료의 봉사나 문헌속보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거시적이고 핵심적인 과제가 printed card 에 의한 綜合目錄(Union Catalogue)의 편찬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것이 완성되어 도서 이용과 도서구입의 경비절약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리하여 어떠한 귀중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일조차도 일일이 모든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조사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실정이니, 문헌 제공의 자동화에 의해서 조사 연구가 신속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에 너무나 뒤진 감이 없지 않다.

선진국과 같이 적극적인 Union Catalogue 를 하루 아침에 완성할 수야 없겠지만 최소한 국립대학 만의 종합목록이라도 속히 완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많은 인적 노력과 물질적인 보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금 서울대학교가 세계적 대학으로서 비약하려는 노력하에 진행되는 10개년 계획중에서, 최소한 이 문제만은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감행해야 할 것이다.